



관덕정

2014년 9월 26일(통권 제69호)

700-832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yi@daegusaint.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com>



새벽 빛을 여는 사람들

시복식, 그리고 순교자 성월

최 호 철(안토니오) 신부

관덕정순교기념관장

아직 여름의 여운이 남아 있지만 9월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을을 연상하게 됩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9월은 우리 교회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권하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 신앙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지난 2천 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앙 증거를 기초로 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만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조선 시대 때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증거로 인해 지금의 한국 천주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4년, 그리고 2014년에 103분의 순교 성인, 124분의 순교 복자가 탄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이 살아간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들 역시 증거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과 신앙을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 감동적이고 뜨거웠던 교황님의 방한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였고, 순교자의 후손임이 자랑스럽게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주님을 어떻게 알아 뵈고 있으며, 어떤 신앙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아 뵈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까마득히 잊고 지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야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깨끗이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사셨던 순교자들의 삶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표가 될 것이며, 우리 영혼이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볼 때 우리는 보다 참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9월 순교자 성월에 우리들이 살아야 할 순교자적 삶입니다.

지난 8월 29일 자로 최호철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관덕정순교기념관 제11대 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잊지못할 순교자 시복식과 교황님!

이 선 주(미카엘라)

상인 성당

+ 찬미 예수님

저는 영세한 지 7년 되는 짙겨우입니다.

영세 후에도 주일만 간신히 지키며 레지오 활동만 겨우 해오던 발바닥 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을 보면서 평일 미사에 참례하게 되고 성경공부도 시작한 지 2년 남짓 되지만 영세하지 않은 남편의 눈치를 보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본당에서 시복식 미사참례 신청을 받을 무렵 평소 소심하던 저는 문득 ‘아! 나도 우리 큰 아이와 시복식에 꼭 가고 싶다.’ 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일단 아이의 의사를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함께 가자고 하며 나보다 더 열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달리 얼른 사무실에 가서 신청부터 덜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외인인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몇 주간을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핑계를 댈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 듯 하였고 여러 방법에 대해 인간적인 고민을 하다 ‘꼭 가고 싶으니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도 바치셨는데 잔피를 피우려고 한 저 자신이 몹시도 부끄러웠고 솔직히 남편에게 이야기하여 이해를 구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너무도 쉽게 동의해주고 “OK” 해주며 함께 가지 않을 작은 아이마저 제 바램 대로 해주기로 약속을 하더군요.

“아! 간절히 바라니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체험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첫 난관을 통과하고 나니 주위의 우려와 걱정처럼 아이를 데리고, 그것도 식사 때마다 도중에 화장실로 직행하는 버릇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나의 욕심이 아이를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시복식에 참여하는 여정이 어렵고 고생스러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원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평소 성인전 만화를 즐겨봐서인지 한결같이 참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와 함께 시복식이 무사히 잘 치러지기를,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잘

참여하고, 순교자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지향으로 기도하며 시복식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 8월 15일이 되었고 아이와 성모승천 대축일 저녁 미사를 참례한 뒤, 미리 준비해둔 가방과 준비물을 다시 점검하며 두근거리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 낮에 바빠 움직이며 버스 이용 시각이 밝인 터라 버스 타고는 바로 잠들 수 있으리라는 계산과는 달리 버스에서 쉽게 잠들지 못하다 깜빡 졸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새벽 세 시 반 무렵 광화문에 입장하여 미리 정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비몽사몽 한 상태로 앉아 있으니 어느덧 동이 트고, 교황님의 카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시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손을 흔드시며 입장하시는 교황님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카퍼레이드 중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감사했어요.

교황님께서 주례하신 시복식 미사는 평소 성당에서 참례하던 미사와는 달리 미사 내내 이탈리아어와 한국어로 진행되어, 미리 받은 안내문을 봐도 때론 정신이 맑지 않아 지금이 어느 부분인지 헤매기도 하였지만, 그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교황님께서 우리 순교선조 124위를 복자로 선포하시던 순간, 복자들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펼쳐졌을 때 거기 모인 신자들은 모두 박수와 환호로써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감동적인 역사의 한순간을 제가 직접 그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멀리서 찾아주신 교황님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시복식 전후는 물론 4박 5일의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우리 온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며 좋은 말씀과 표양으로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감동했고, 위로를 받았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청 때부터 걱정했던 날씨도,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멍한 상태였음에도, 모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식으로 인한 공복감을 별로 느끼지도 못한 채 뜨거운 가슴으로 시복식에 참여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박해의 온갖 어려움에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켜내도록 이끄셨던 우리 주님께서도 과연 8월 중순의 무더위도, 피곤도, 허기도 인간적인 우리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는 당신이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이란 없으셨습니다. 돌이켜봐도 흐뭇하기 그지없는 신앙체험이었습니다. 특히 어른들처럼 식사를 조절하지 않은 우리 아이도 화장실의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았기에 더욱 좋은 기억이 남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순교자의 이끌림, 124위




관덕정순교기념관
시복 경축



불이난 비죽이관

순교자의 이끌림, 124위!



세탁경축 및 순교자 연향 프로그램

· 할아버지는 순례 (단체)

1. 천국으로의 행진
2. 음악순례의 메아리
3. 성화로 만나는 20위 순교복자
4. 출발! 천국성지순례
5. 순교자의 이끌림, 대구에서 20위
6. 순교자, 영혼의 향방

· 땅속의 순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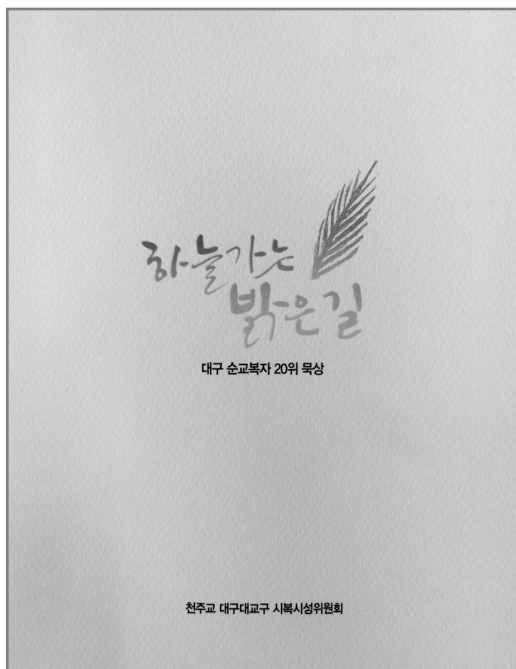
7. 순교자랑 나랑!
8. 왜 걱정하십니까?
9. 순교자의 글, 손으로!
10. 교황님, 반월당에서 만나다!

기간_ 2014. 8. 1
~ 9. 30

문의_ 053. 254. 0151

주최_ 관덕정순교기념관

관덕정순교기념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과 124위 순교자 시복을 경축하기 위해 ‘순교자의 이끌림, 124위’를 마련했다. ‘천국으로의 행진’, ‘음악순례의 메아리’는 순교사 현장에서 펼쳐지는 연극과 도보순례, 음악감상 프로그램으로 9월 말까지 운영된다. 상시 순례 프로그램도 마련돼 순례를 원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순교복자의 영정을 보며 묵상할 수 있는 ‘성화로 만나는 20위 순교복자’, 복자 20위 가운데 한 분을 정해 그 영성을 묵상하는 ‘순교자랑 나랑!’, 복자 김종한 안드레아의 편지글을 스탬프로 찍어보는 ‘순교자의 글, 손으로!’, 순례자의 지향을 기도 카드에 적어 봉헌하는 ‘왜 걱정하십니까?’ 등이 8월부터 시작돼 순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늘가는 밝은 길

천주교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시복식 미사에서 124위 복자가 탄생했다. 124위 복자들 중에서는 대구대교구의 순교자 20위가 포함돼 있다. 1815년 을해박해 순교자 11위, 1827년 정해박해로 순교하신 6위,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3위가 대구 순교복자이다.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에서는 20위 순교복자들의 삶과 영성을 배울 수 있는 묵상집을 펴냈다. 「하늘가는 밝은 길」은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그분들을 기억하고 본받아 복자 한분 한분의 신앙이 우리 삶 안에 되살아나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관덕정 순교자 시복감사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제20회 후원회원의 날 행사가 9월 6일(토) 개최됐다. 이날 미사는 관덕정 순교자 시복감사와 순교자 현양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로 봉헌됐다. 미사집전에는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 주례로 황용식(타대오) 신부님, 박석재(가톨릭) 신부님, 변재홍(프란치스코) 신부님, 황영삼(마태오) 신부님, 황대환(바오로) 신부님, 관장 최호철(안토니오) 신부님이 함께 했다.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실감 나게 마음에 와 닿으며 이러한 사실을 우리 순교복자들이 몸으로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미사에 참여한 모든 교우에게 관덕정에서 마련한 호박떡을 나눠주었다.



나바위 성지



배티 성지

국내성지순례

7월 20일(일) 전주교구 나바위 성지를 순례했다. 9월 21(일)에는 배티성지를 순례했다.

시복기원 성지순례

7월 10일(목) 수원지역, 9월 11일(목) 우곡성지를 거쳐 용소막, 묘재, 배론성지를 잇따라 순례했다.

교황님, 반월당에서 만나다



8월 14~28일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교황님 메시지전시회를 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를 대구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한 공간이었다. 교황님의 짧은 메시지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관덕정 영성 강좌

9월 6일(토) 현익현(바르톨로메오) 신부님께서 크리소스토마 슈미트 수녀님의 삶과 시를 소개해주셨다. 크리소스토마 수녀님은 1949년부터 북한 옥사덕 강제 수용소에서 4년 6개월 동안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독일로 귀환하신 분이셨다. 이날 참석한 교우들은 고통 속에 살면서 공산당들이 피우다 버린 담배꽂초 종이 위에 적었던 수녀님의 시를 함께 나누었다.



현익현(바르톨로메오) 신부님

교회사 강좌

7월 5일(토) 장휘지 필로메나 운영위원이 “김희성 프란치스코, 김화춘 야고보의 생



장휘지(필로메나)



양영옥(로즈마리)

애와 영성”에 대해, 8월 2일(토)에는 양영옥 로즈마리 운영위원이 “구성열 바르바라와 이시임 안나의 생애와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제22회 순교자 현양 주일학교 학생 백일장 개최

주일학교 학생 백일장이 9월 21일(일) 오후 2시에 실시되었다. 참가한 학생들은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기회를 가지며 자신들의 글솜씨를 뽑내 작품에 정성을 다했다. 시상식은 10월 첫 토요일인 4일에 실시된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시복미사 참가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시복미사에 관덕정 운영위원을 비롯한 봉사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랫동안 순교자 시복을 위해 관덕정에서 봉사해왔기에, 시복미사에 참례하는 감회가 남달랐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6월 22일부터 2014년 9월 21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강문희	故구삼암	故금용조	故김봉조	故김석기	故김승연	故김영주	故김용만
故김재봉	故김재임	故김준식	故김진한	故김창욱	故김해진	故김현곤	故노동악
故노순분	故문종영	故박동현	故박상화	故박종숙	故박천조	故박태호	故백명지
故여흥영	故오삼덕	故오옥자	故우종한	故유영길	故이금난	故이달순	故이동이
故이상학	故이성진	故이영희	故이인수	故이재순	故이재열	故이춘만	故이한승
故장수갑	故정묘현	故정연만	故정을태	故최잠철	故최정분	故탁상연	
권나운	권동영	김교훈	김귀애	김양순	김정희	김종필	김해니
나재순	남경덕	문정자	민정기	박근동	박기대	박명순	박문자
박복순	박승희	백종목	백종화	서봉선	석영순	손정분	손해길
송극순	송순옥	우귀순	이선화	이정은	이팔선	장재훈	장춘혜
전계선	전광수	전운자	정복남	정임수	진정현	차순자	홍경희

가족 회원

강남규가족	권논나가족	권미정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두주가족
김봉환가족	김수연가족	김영득가족	김영숙가족	김영희가족	김일성가족
김재만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엽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진철가족	김현정가족	노 옥가족	노재희가족	류진춘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대환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영자가족
박용희가족	박자야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화수가족	박화순가족	백덕흠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영익가족	손춘자가족	손효식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안희숙가족	여운옥가족	유준영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경준가족	이길자가족	이수자가족
이아네스가족	이영수가족	이운수가족	이인숙가족	이창규가족	이창수가족
이창오가족	이춘계가족	이태연가족	이태호가족	이화선가족	임달례가족
장상진가족	장이순가족	장진동가족	정만구가족	정명숙가족	정병기가족
정수자가족	정은정가족	정일상가족	정화숙가족	조정자가족	최경식가족
홍태숙가족	황수진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곽정돈 구이분 김경록 김경원 김계순 김계옥 김성은 김순조 김일환 김점수
 김정훈 김종국 김지혜 김화자 박기준 박동숙 박용일 박용택 박재영 박준범
 신석순 양대근 오성자 윤혜정수녀 이경애 이경자 이경희 이명규 이묘년
 이승민 이영순 이윤홍 이일수 이재분 이종순 이준순 임태건 장일순 전화선
 정경자 정수자 제현희 최덕환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특전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